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0월 14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행21장 19-26절

설교제목 : “그러면 어찌할꼬”

어떤 공동체이든지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인간에 갈등을 가져오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랫동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19절) 바울로부터 선교보고를 받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보고를 듣고 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숫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다 율법에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였습니다.(20-21절) 보통 우리에게 오해의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데, 왜곡되는 과정을 보면, 대개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어디에서 기인했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 복음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바울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관점과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해가 생겨나게 되면, 제일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해의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오해의 잡초에는 증오의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는 가시와 같은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자신 뿐만 아니라, 오해의 대상을 아프게 찔러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해는 반드시 오해의 대상을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증오의 감정이 생겨나면 다른 정상적인 생각들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대방을 이해하려거나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건잡을 수 없이 더 커지게 되고 오해가 또 다른 더 큰 오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네 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더불어서 네 명의 서원자들이 결례를 행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도 대신 지불함으로써, 바울 자신이 결례를 인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한 가난한 나실인을 돕는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참고 민6:13-18절) 이러한 제안을 바울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26절) 혹자는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타협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역시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충고를 따른 것은 바울 자신의 신앙적 원칙 때문입니다.(고전9:19-23)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까?** 우선, 아무리 살아가면서 노력해도 오해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에도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행16:3, 행18:18) 오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해를 받을 때 너무 낙망하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일이 없어도, 피할 수 없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받게 되면, 가능하면 오해를

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의 대개의 경우, 오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인내와 겸손의 마음으로 참고, 주님께 맡기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해를 받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내와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오해로 인한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누가는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탈진한 모습을 그려줍니다.(행23:1-3)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행23:11)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탈진하여 낙담할 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오해의 과정을 통해 바울이 소원하던, 로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당한 오해의 결과로 비록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송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진 것입니다.(빌1:12) 주님께서는 바울이 받은 오해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욱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해받을 때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오해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으로 오해를 받으사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억울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해하며 살기도 하고, 오해받고 살기도 합니다. 오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사실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오해받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오해를 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내하면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해로 인한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오해의 과정마저도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오해는 무엇이며, 이러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야고보와 장로들이 고안해낸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 2)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3) 잘못된 오해가 공동체 안에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해를 받을 때 대개의 경우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혹시 억울한 오해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인내와 겸손으로 참았는데, 주님께서 그 오해의 과정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경우가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